

“3지대를 선점하라” 막오른 주도권 경쟁

박지원, 국민의당 중심 연대 강조
손학규·김종인 개헌고리 모색
범여권은 반기문 영입에 사활
潘 지지율 따라 동력 좌우될 듯

제3지대에서의 ‘새 판짜기’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논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각 세력 간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개헌을 고리로 ‘반문(반문재인) 연대’를 구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정계개편 논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박지원 국민의당 신임 대표는 지난 15일 “국민의당이 빅텐트이고 플랫폼이다. 제3지대는 국민의당”이라며 정계개편의 주역을 자처하고 나섰다.

그는 이어 16일 최고위에서 “자강론과 연대론은 동전의 양면으로, 큰 천막을 치려면 더욱 깊게 단단하게 우리 당의 기둥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취임 일성으로 ‘빅텐트론’을 제기한 데 이어 연대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민의당이 새 판짜기 논의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박 대표는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반 전 사무총장, 손학규 전 대표, 그리고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이 문자로 축하 인사를 해주셨다. 황 대행이나 반 전 총장, 손 전 대표는 이른 시일 내에 한번 만나자는 제안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개헌을 고리로 한 정계개편 ‘빅뱅’을 예고해온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2野 “잘해 봅시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16일 오후 취임 인사차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방문, 추미애 대표와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대표가 박 대표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제3지대에 합류 가능성을 열었다.

손 전 대표는 박 대표 선출 소식에 “다음 대선은 개혁을 위한 개헌세력과 수구적인 호헌세력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의당 새 지도부가 새 판을 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손 전 대표는 오는 22일 ‘국민주권 개혁회의’ 출범식을 통해 정국적 새판짜기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도 그동안 개헌을

고리로 제3지대 정계개편 논의에 전향적 입장을 취해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1일 한 강연에서 “핵심은 대통령의 무제한적 권력, 특권, 패권을 제거하는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서로 연합해 국정을 담당하는 연립정부와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 전 총장이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인다면 김 전 대표와 공감대가 커지며 정계개편론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권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 논의에 맞서 범여권은 반 전 총장을 끌어들이며

트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반 전 총장의 영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이런 맥락이다.

이에 따라 제3지대 빅텐트론의 관건은 결국 반 전 총장의 향후 행보에 달려있다는 게 지배적 분석이다.

반 전 총장의 대권행보가 탄력을 받고 지지율이 올라갈 경우 그를 중심으로 여야의 ‘해저모여’가 가속화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지지부진하다면 관련 논의가 응집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ju.co.kr

潘 귀국에도…文 지지율 1위

리얼미터…26.1%로 3.9%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2주 연속 대선주자 지지율 선두를 이어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의 성인남녀 2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 결과, 문 전 대표가 지난주보다 0.7%포인트 내린 26.1%의 지지율로 1위를 지켰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반 전 총장이 귀국한 12일 지지율은 24.9%, 13일은 23.7%를 기록하는 등 반 전 총장 귀국에 따라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 반 전 총장은 귀국 이후 지지율이 상승해 지난주보다 0.7%포인트 오른 22.2%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문 전 대표와의 격차를 좁혔다. 특히 반 전

총장은 12일 23.3%의 지지율을 올린 데 이어 13일에는 25.3%를 기록해 문 전 대표를 누르고 일일 지지율로는 1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1.7%,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대표는 7.0%, 안희정 충남지사는 4.9%, 박원순 서울시장은 4.4%였다. 다음은 손학규(2.3%), 유승민(2.2%), 홍준표(1.3%), 남경필(1.2%), 김부겸(1.1%), 원희룡(0.7%)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2.9%포인트 내렸으나 36%로 1위를 이어갔으며 새누리당은 0.7%포인트 오른 16.2%로 2위, 국민의당은 1.5%포인트 오른 13.2%로 3위, 정의당은 0.6%포인트 내려 5%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문재인 책 출간…성장과정·정치역정 등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6일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를 출간했다.

문 전 대표는 저서에서 6개 주제로 나눠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부터 정치역정에서 느낀 점들,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 차기 정부의 비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각을 담았다.

특히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자신과 경쟁하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민주당 내 다른 대선주자들에 대한 의견도 꺼내 눈길을 끌었다.

문 전 대표는 저서에서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신해행증(信解行證)’을 꼽았다. 이는 ‘국민을 믿고(信), 이해하며(解), 국민의 행복을 실천하고(行), 국민의 행복을 완성한다(證)’는 뜻이다. 특히 ‘편가르기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오의 정치가 아닌 화쟁의 시대로 가서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만만 정치인 중 가장 진보적 정치인”, 김영삼 전 대통령에는 “늘 경청하는 분”이라고 각각 평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ju.co.kr

문재인·안희정 vs 이재명·박원순·김부겸

민주 경선틀·사드 배치 등 사안마다 입장차

비노계, 공동경선·정부 구상론으로 文 흔들기

경선틀과 정쟁에 대한 입장을 놓고 친노(친노무연)계인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비노(비노무연)계인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의원 등이 명확한 차이를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 경선 구도가 ‘문재인·안희정 대 이재명·박원순·김부겸’ 형식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특히 비노계 주자들은 ‘문재인 대세론’을 흔들기 위해 연합하는 모양새까지 취하고 있어 향후 대선전선의 방향이 주목된다.

우선, 박 시장과 이 시장, 김 의원은 17일

대선 경선틀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16일 ‘촛불 공동경선’과 관련, “내일(17일) 민주당 내 후보들에게 설명을 드릴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며 “이 시장과 김 의원이 나와주시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17일 회동에 문 전 대표와 안 지사에게 참여할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이 없다”고 했다.

박 시장은 촛불민심을 실현할 야권 공동 정부를 구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선 경선부터 야 3당과 시민사회까지 참여한 공동 경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이에 대해 이 시장과 김 의원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공동경선·정부 구상은 ‘문재인 대세론’을 깨기 위한 승부수라는 분석이 많다.

양측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놓고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 전 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결정을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안 지사도 지난 11일 사드 문제와 관련해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무간 협상을 통해 결정할 것은 그것대로 존중하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문 전 대표의 발언은 호된 공세의 빌미가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ju.co.kr

이 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드는 일방적으로 미국에 이익될 뿐 한국안보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피해가 크다”며 “사드 관련 입장이 왜 바뀌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박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미국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는 지도자가 어찌 국익을 지킬 수 있을까요”라며 “정치적 표를 계산하며 말을 바꾸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공세에 문 전 대표 측은 일단 “다음 정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자는 것이지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으나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 이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ju.co.kr

반기문, 박대통령에 2분간 전화 인사

潘 “잘 대처하시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귀국 인사를 했다고 반 전 총장의 이도문 대변인이 밝혔다. 지난 12일 귀국 이후 나흘 만이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박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부디 잘 대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타깝게 된 상황’은 탄핵을 당해 직 무정치 상태인 박 대통령의 처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잘 대처하길 바란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연합뉴스

반 전 총장은 이어 자신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히는 기후변화협약 비준과 지속가능개발 목표 이행 등 유엔의 주요 업무와 현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데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보였다.

이에 박 대통령은 “12일 귀국 이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10년간 노고가 많으셨다”며 “그동안 많은 성과물을 거두셨다.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반 전 총장과 박 대통령의 통화 시간은 약 2분이라고 이 대변인이 설명했다.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건물] 광주시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부근 남동측 토지 864.8㎡ 건물 1514.31㎡ 감정가 20억7천2백 ▶ 최저가 14억5천
- ★ [공장] 광주시 북구 일곡동 OB맥주 광주공장 부근 토지 1872.59㎡ 건물 1540.1㎡ 감정가 13억7천2백 ▶ 최저가9억6천
- ★ [공장] 광산구 옥동 평동초교 동측위치 평동 제1차 일반산업단지 토지 1662.6㎡ 건물 2547.76㎡ 감정가 11억1백 ▶ 최저가 7억7천1백
- ★ [건물] 목포시 석현동 가톨릭대학교 부근 병원건물 토지 12,096㎡ 건물 8,337㎡ 감정가 139억7천3백 ▶ 최저가 78억2천5백
- ★ [무인토지]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도곡온천관광단지내 포장도로점 토지 3,234.2㎡ 건물 4,280.8㎡ 감정가 37억8천7백 ▶ 최저가 12억4천1백
- ★ [건물]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토지 11,546㎡ 건물 5,733.24㎡ 감정가 48억8천6백 ▶ 최저가 21억9천9백
-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장성 백이사거리인근 공장지대 토지 9,178㎡ 건물 5,842㎡ 감정가 36억5천5백 ▶ 최저가 16억3천7백
- ★ [공장] 광산구 옥동 평동산업단지내 기아자동차출하사무소 서측 도로점 토지 2,911.9㎡ 건물 1,811.2㎡ 감정가 32억9천7백 ▶ 최저가 18억4천6백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토지 23,147㎡ 매매가 평당10만
- ★ [토지]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계획관리지역 주택, 과수원 (물류창고, 공장적합) 토지 34,000㎡ 매매가 상담후 협의가
- ★ [토지] 동구 지산동 무등산 유원지 카페거리 부근 토지 1,950㎡ 주위 식당, 카페성업중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토지]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중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성업중 투자적합
- ★ [토지] 제주시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 한라산조망, 펜션, 빌라 부지적합 토지 4,000㎡ 주택 28세대가능 상가 건물로 교환 원함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토지] 북구 화암동 무등산공원내 답 1,700㎡ 주말농장 및 농지원부가능 매매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 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
- ★ 광주근교 전원주택부지 다량보유

수익형 추천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 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 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건물] 서구 금호동 아파트 밀집지역 사우나,헬스 6층 건물 대지 1,896㎡ 건물 1,320㎡ 1층 점포다수 고수익형 매매 58억
- ★ [건물] 광산구 첨단 롯데마트부근 지하1~7층 요양병원 대지 1,350㎡ 건물1,192㎡ 임대안고도 가능 매매 60억(협의가)
- ★ [건물] 광산구 공항에서 송정역 대로변 지상 6층 병원건물 대지 958㎡ 건물 2,570.58㎡ 매매 35억
- ★ [건물]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대로변 지하2층~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2㎡ 매매 55억
-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상암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5천 월2천8백만원 매매 50억
- ★ [건물] 광주 북구 용두동 양산사거리부근 대로변 메디컬센터 입점중 대지 929㎡ 건물 895㎡ 매매 63억
-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럴빌부근 코너 대지 298.9㎡ 건물 175.9㎡ 4층건물(용6억포함), 보증금 7천 월4백6십 매매 13억5천

공인중개사 장현준 010-3610-4039 배우면서 함께 일하실 공인중개사 구함 062-714-2258